

범세계화 시대의 국학*

박 영 신**

I. 역사의 이야기

한말 변혁기와 일제 강탈기 초기에 교육을 통한 구국 운동의 세찬 바람이 온 땅을 휩쓸고 있을 때, 개신교 기독교의 전파 과정과 교육 운동이 맞붙어 “教會가 서는 곳에는 반드시 學校가 그 옆에 서게” 되었다. 이 상황은 구국의 열망과 민족 의식의 분출이었다. 대학이라는 영역에 한정짓고 볼 경우에도 그러하다.

1906년 일찍이 평양에 세워진 숭실전문학교(The Union Christian College)와 함께 9년 뒤에 문을 연 서울의 연희전문(The Chosen Christian College)이 그 보기이다. 그 당시 기독교 교육 기관이 일제의 탄압과 차별 정책의 희생이 되었음은 여기에서 다시 말 할 필요도 없다. 민족 운동의 하부 세력으로 작용할 때 이들 교육 기관이 당하는 핍박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미 독립 운동 이후 이들 학원에 퍼부어진 일제의 탄압은 그만큼 더 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찾아 온 젊은 이들이 많았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보기로서, 연희 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백 낙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당시의 학생들이 이런 차별과 모욕과 고통을 당해 가면서도 연희전문학교를 찾아온 것은 민간인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관이긴 하였으나 다른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朝鮮民族의 정신이 홀렸으며, 여기에서 自由思想이 자랐으며, 여기에서 同族愛가 용솟음쳤고, 여기에서 뜻이 같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 글은 인문과학연구소 주최의 1995년 6월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세계속의 한국학”에서 발표된 기조강연 내용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장

이같은 지적 및 사상적 상황은 다만 학생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교수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익히 알고 있는 바 대로, 1915년 학교를 창설할 때 대학의 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일본 총독부는 대학 설치에 관한 법이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여 그때 최고 학부가 전문학교였던 만큼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식민 정책의 여러 고리 가운데 그 하나로 이른 바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이 1924년에 세워졌던 만큼, 우리 나라에서 가장 먼저 최고 학부로 발돋움하려던 연희 학원은 어쩔 수 없이 전문학교로 출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 체제와 교과 내용이 대학이었음은 다시 적을 필요도 없다. 그런 까닭으로, 교수진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설립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초빙하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수로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일본인이 들어있었으나, 주로 한국인과 서양인들이 교수였다. 한국 교수들의 훈련 배경은 달랐다. 나라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과 나라 밖, 곧 일본이나 서구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 배경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강한 민족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일제 강탈기의 민립 학원은 수난 받는 민족의 운명을 표상 짓고 있었다. 대학령(大學令)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식민지 강탈국의 행정 기관이 대학을 세우려 한 뜻을 꺾어 대학의 이름을 달지 못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모를 꺾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제한된 조건 속에서 대학 교육을 감행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실질적인 대학을 꾸려나가려 했고, 그러한 수난의 학원에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구국의 애국적 교육자들이 모여들어 나라를 되찾을 인물들을 가르쳤고 빼어난 학자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나라 되찾는 학문을 닦았던, "민족주의의 소굴"이었다.

II. 겨레 위한 학문

강탈당하는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있는 대학, 그것은 그 수난의 역사에 발언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했다.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 밖으로 가버려 지도자를 잃고 빈 들판에 던져져 있던 겨레의 절망에 대학은 정신적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땅에 와있던 선교사들과 나라 안에 남아있던 겨레의 지도자들이 겨레의 새 지도자층을 양성해

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했던 것이다. 대학은 지도자의 '공백상태'에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도구였었다.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선교와 뗄 수 없게 이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좁은 뜻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기르자는 것이 아니었다. 선교 지역에 세운 초기의 고등 교육 기관들이 대개의 경우 신학 교육에 치우쳐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세운 기독교 고등 교육 기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다.

잔혹한 일본 강탈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희 학원에서 나라의 역사와 겨레의 말글을 가르쳤고, 이 방면에서 정 인보, 이 윤재, 최 현배, 김 윤경과 같은 학자들이 깊은 연구를 쌓았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미 정 인보와 최 현배가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1930년에는 이 두사람의 논문을 실은 교수 논문집 [조선어문연구](제1집)를 간행하였었다. 겨레의 역사적 삶을 그 밑바탕에서 논구하여 외세의 강탈기에 학문으로 맞섰던 국학(國學)의 연구는 이 기독교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찾아 되새겨 이를 이어가고자 한 학인들의 운동으로 겨레를 위한 학문이 펼쳐졌던 것이다.

한말 이후 신학문을 배우려는 뜻으로 외국의 학문을 배우고자 하여 이를 어느 만큼 '수입' 하여야만 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 과정에서 겨레의 문화적 유산은 가볍게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복자 일본의 강탈기에 들어서서는 겨레의 문화적 전통이 제도적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화적 위기의 상황에서, 겨레의 얼을 지키고 그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은 더욱 절박하였다. 국학을 일으켜 나라의 역사와 말글 문화를 살리고 갈고 닦으려 한 선각자들이 이 요청에 응한 사람들이었다.

광복 후에도 이러한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비록 외국의 교육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 들여 모두가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였는데도, 국학의 전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다운 학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학문 세계를 주목하고자 하였다. 학문은 그것이 터하고 있는 민족 사회의 것이어야 할뿐더러, 민족 사회를 위하여 그 몫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겨레의 문화적 유산과 학문, 그 속에 드리워진 가치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생각이 쉬임없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여 우리의 '참모습'이 일그러질 때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더욱 요청되었다.

Ⅲ. 범세계화와 열린 학문

국학의 진흥이 그러나 닫혀진 좁은 민족주의의 틀 속에 갇혀져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겨레를 위하고 겨레를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하여 바깥과 담을 쌓거나 바깥 것이라면 모두 거부하여야 할 까닭은 없다. 차라리 바깥 넓은 세계에 활짝 학문적 및 사상적 의사소통의 창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국학은 겨레가 남긴 문화적 전통을 지키는 데서, 그 전통을 찾아 다듬는 데서 그 사명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국학은 겨레의 이상을 만드는 사명을 또한 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영.정조(英.正祖) 시대에 일어난 실학자들이 실(實)과 진(眞)을 찾아 이 나라 사람들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나라의 것을 알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오늘의 국학 또한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캐어 찾고 겨레가 부딪힌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풀어야 하는 학문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뜻있는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다. 고식적인 틀 속에 감금되어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은 자유스럽고 실험적인 조건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대학은 비교론적인 시각과 종합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며, 그러기에 세계를 향한 지적인 창을 활짝 열어두고 있어야 하고 세계적 수준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삶 속에 드러내도록 교육이 짜여져야 한다. 더욱이 기술과 지식의 증대, 전문화, 사회적 분화, 무엇보다 범세계적 체계화 때문에 '후진'과 '선진'의 범주에 속하는 나라들이 점차 한 덩어리의 부분이 되어 개별적 존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모든 나라가 들어선 것이다.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을 무시하고 자기 나라나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꿈꾸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다. 세계를 향한 창은 이에 대한 갖가지 평가와 상관없이, 개별 국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세계 전역에 주어져 있으며, 거꾸로 모든 나라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화니 세계화라는 이름을 붙여 말하고 있는 상황은 특히 국학에 커다란 도전의 의미를 가진다.

대학의 문이 넓어진 그 사회적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대학이 좁은 테

두리 안에 안주할 수 없으며, 더 이상 향리적 이익과 가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어제'의 역사를 '내일'의 역사로 이어줄 사명이 있다. 그것은 겨레가 이어온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뜻하지 않는다. 겨레의 역사 전통의 확인과 계승은 겨레의 '자기 참모습'을 잃지 않고 지켜 갖추고자 함이며 그러한 모습을 지키면서 겨레가 맞닥뜨린 넓은 문제를 실천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일에 이어져야 한다. 국학은 맹목적으로 '어제' 속에 함몰되어 안주하자는 회고적 마음가짐을 이념으로 삼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여, 대학 자체가 점점 더 넓은 앞날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듯이, 국학 또한 더욱 넓은 학문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것이라 하여 무엇이건 값없는 것이라고 지레 판단하여 마침내 자기 참모습을 잃어버리는 파멸적 상황을 낳는 어리석은 짓을 거부하는 동시에, 우리 것이라 하여 무엇이건 제일이라고 치켜세워 드디어 좁은 우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웅졸한 맹목성도 거부하여야 한다.

IV. 변증의 학문

오는 세기의 국학은 전통의 단순한 보존에서 머무를 수 없다. 새로운 학문의 이론과 방법, 새로운 해석과 관점과 만나 새로운 국학의 학문적 세계를 끊임없이 넓히고 깊이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 안팎을 구별짓는 높은 담벼락을 허물어뜨리고, 학문 영역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단절의 성벽을 뛰어넘어 국학의 학문 세계를 열어놓아야 한다. 이 일은 무작정 안으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려니와 반대로 무작정 밖의 것을 숭상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않으며, 어느 한 학문 영역의 독점이나 지배를 허용치 않으며 어느 한 학문 영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줄 필요도 없다. 모든 학문이 더욱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끝없는 범세계적 도전 앞에서 있다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과 차원에서 자기의 것과 남의 것, 어제의 것과 내일의 것을 변증적으로 서로 이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도전 앞에, 국학이 예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오늘의 국학이 이룩한 업적을 전혀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국학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세계인'의 삶에 대한 넓은 관심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다. 어느

한 나라의 전통이나 가치가 다른 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인류가 바라는 내일의 세계가 아닐진대, 정치적 지배의 야욕과 경제적 착취의 침탈, 그리고 문화적 통제의 확장, 그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는 공평하고 평등한 범세계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든 나라가, 모든 학문이, 모든 학인(學人)이 나와 서로 만나고 함께 기여해야 한다.

이 일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별이 무의미할 것이다. 두 문화권의 전통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서로 더욱 넓은 삶의 세계를 끌어안고 펼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경쟁하듯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과 서가 만나는 다원주의 시대에서 자기만의 가치가 최종의 것이며 최상의 것이라고 여겨 배타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공평하고 평등로운 세계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서의 삶을 일구기 위한 보편적 가치에, 오늘과 내일의 국학이 값있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깊은 문화적 수준에서의 논의를 요구하는 한, 어느 다른 영역보다도 국학에 맡겨진 일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국학은 향리적인 익숙한 좁은 세계를 떨쳐버리고 더욱 넓은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문명적 변화의 문제적 상황을 논구하는 학문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선조의 유산 속에 있든, 바깥 세계의 문화적 유산 속에 들어있든 그들이 한 인류로서 살아온 모든 과정을 온전히 익혀 그것을 오는 세대에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까닭으로 그 사명은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서양인에게만 맡겨진 것도 아닌, 온 인류가 져야 할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국학은 더 이상 어느 특정 학문 영역에 독점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모든 학문 영역에 열려져 있어야 하며, 이들 학문이 집합적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기 참모습을 지키면서도 고정된 것으로 굳히지 않고 끝없이 새로운 자기 참모습을 키워나갈 수 있게, 국학은 넓은 지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게 넓고도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겨레의 사람이자 넓은 세계의 사람으로 겨레의 앞날과 널리 세계인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자극하는 일을 오늘의 국학이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니 거기에 커다란 뜻을 두고 있어야 한다.

V. 국학의 일거리

오늘날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경제주의적인 발상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다. 거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무참히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무한 경쟁 시대'라 말하여 절실하다 못해 공포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깊은 문명의 수준에서 문명 비평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지난 몇 세기를 거처온 오늘의 문명은 만병통치의 완벽한 문명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단순한 도구적인 뜻에서 파악하는 문명, 편리와 효율성을 일차적 가치로 신봉하는 목적을 질문하지 않고 이에 대한 수단의 제공에 온 힘을 쏟아온 문명, 학문은 그 시너로서 기능 하는 데서 자족하여 왔었다. 이에 대한 성찰적 비판 가능성은 아예 없었다. 여기 문화적 유산과 씨름하고 문화적 가능성을 꿈꾸고 있어야 할 국학의 새로운 소명이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문명의 도덕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국학이 체현해야 한다.

이 학문은 깊은 수준에서 도덕적인 성찰을 요청한다. 첫째, 민족의 자존성과 범세계적 보편성이 이어지는 바, 오늘의 문명적 흐름이 공평하고 평화스러운 세계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른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평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선진국'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자아내고도 있는 도구적인 문명, 거기서 비롯되어 나오는 제국주의적 발상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가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제국주의란 다만 이른바 '선진'과 '후진' 사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시각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그 도덕적 성찰은 불충분하다. '후진국'들도 자체의 후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이웃한 다른 후진 민족이나 국가를 서슴없이 이용하고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기술의 생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파괴력에 눈멀어 있는 측면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연 과학의 지식과 그 밖의 여러 지식의 발달은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이만큼의 변명을 누리면서 거대한 경제적 부를 획득하게 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에게 번영과 부를 선사하고 있는 한편, 인류에게 멸망과 파괴의 위험을 주고 있다. 지식 생산과 그 활용에 대하여, 지식 그 자체에 대하여 인간이 감당해야 할 도덕적 책임을 일깨우는 일이 문명 비판의 자리에 서야 할 국학의 오늘과 내일에 맡겨져 있다 할 수 있다. 지식 생산자와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선과 악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에 대하여 깊은 학문의 자리에서야 할 국학이 침묵할 수 없다.

VI. 맺음말

겨레의 자각을 학문적으로 일구어야 할 사명을 수행하였던 국학, 외세의 억압 밑에서 짓밟히고 잊혀져 가는 겨레의 문화적 유산을 캐고 지켜야 한다는 민족 자존의 학문을 일구었던 국학, 그것은 다만 우리의 것이라 하여 모든 것을 미화하는 좁고 닫힌 생각과는 다르게, 세계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과 대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학문적 개방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겨레의 주체적 자각을 통하여 동과 서가 만나, 제각각 더욱 완전한 보편적 가치를 위하여 서로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범세계적 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지식 추구의 행위와 지식 추구의 목적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같은 지식 비판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영원한 갱생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덕적 차원과 긴밀히 이어져 있어야 한다. 고삐 없는 지식의 광포함과 그것이 낳을 인류 파멸의 괴물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말이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국학은 범세계화의 과정 속에 관여할 수 있고, 또 관여하여야 한다. 좁은 관심의 테두리를 끝없이 벗어나고 넘어서는 지적 및 도덕적 행위에 국학 연구가 이어질 때, 그 학문은 비로소 살아있는 학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